

## 기후변화: 청년들이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

작성자 : Unai Aspire 고려대학교지부 김현정 최예지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6 살 소녀에 대해서 들어보았는가? 최근 그녀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그녀는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시위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그레타는 8 살 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2018 년 여름, 스웨덴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 되자 그녀는 8 월 총선이 열리는 9 월까지 학교를 결석하고 의회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 인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청년들에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고 그들이 즉각적인 움직임을 하도록 이끌었다.

그레타 툰베리의 등교거부 시위는 세계적 기후 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50 개국에서 400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시위에 참여했다. 툰베리의 시위 이후 SNS 상에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ForFuture)'이라는 해시태그로 이 운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스웨덴, 영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호주, 일본 등 40 여개 국가의 청년들에게로 그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지난 21 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청년기후 행동회의가 열리면서 그 전후로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 각지의 청년들이 시위를 열었다. 한국에서도 지난 9 월 27 일 시위에 약 500 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청년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러쉬 등 여러 기업들의 시위 동참을 이끌어 세계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실감하게 만들었다. 또, 각국 정상들도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처를 약속하고 지난 2015 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발표를 이어갔다.

그레타 툰베리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녀는 운동의 원인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나의 도덕적 책임이다. 나는 정치인들이 기후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기처럼 다루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채식을 실천하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툰베리의 모습은 '어린 청년들은 기후 변화 문제에 손을 쓸 수 없다'는 기성의 통념에 반박을 가한다. 그리고 청년들도 '어린 사람'이 아니라 '지구의 한 사람'으로서 기후변화 시위에 참여하여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소한 습관들을 실천함으로써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모여 기업들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것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세대, 그리고 미래의 세대일 것이다.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청년들이 행동할 때이다.

Climate change: when young people need to show movement.

Editors: Hyeonjeong Kim, Yeji Choi (UNAI ASPIRE Korea University Branch)

Have you heard of a 16-year-old girl from Sweden named Greta Thunberg? Recently her name has been heard all over the world. She is a youth environmental activist in Sweden and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protests called "Friday for the Future."

At age 8, Greta began to feel a sense of crisis over global warming, and despite the seriousness of global warming, she said, she began to wonder why people were doing nothing. In response, in the summer of 2018, when the hottest summer in Sweden's weather observation history, she was absent from school until September when the general elections were held and staged a one-man protest in front of Congress to urge them to come up with measures to tackle climate change. Her behavior has become a huge wave for young people, making changes in their perception of climate change and encouraging them to make immediate moves.

Greta Thunberg's boycott of school has led to a global climate movement, "Friday for the Future," in which more than 4 million people from 150 countries have participated so far. The hashtag '#Friday for Future' became known around the world o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the movement of young people spread to more than 40 countries, including Sweden, Britain, Belgium, France and Germany, as well as Australia and Japan. After the U.N. Conference on Youth Climate Action was held in New York, the movement by young people spread around the world to protest from all over the world. In South Korea, about 500 teenagers also took part in Sept. 27. The movement has led not only young people's movements, but also various companies such as Google, Microsoft and Lush to join the protests, making the world realize the urgency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addition, leaders pledged to actively tackle climate change and continued to announce detailed plan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What message does Greta Thunberg deliver to young people? Talking about the cause of the exercise, she said, "I'm doing this because other people do nothing. It is my moral responsibility to do what I can. I want politicians to prioritize climate issues, focus on climate, and treat it like a crisis." She also shows her concerns about climate change by acting directly, such as practicing vegetarianism, in order not to adversely affect climate change in person. This suggests that young people can take moral responsibility and take the lead in tackling climate change. It will not be the older generation, but rather be our generation, and the future generation, that will suffer the damage from climate change. It is time for young people to act so that climate change does not become more serious.

BBC 뉴스, 그레타 툰베리: 기후 변화를 놓고 세계 정상들과 한 판 붙은 10 대, 2019. 09. 28.,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49849279>

오마이뉴스, 그레타 툰베리의 '경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9. 05. 3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155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1554)

시사상식사전- 그레타 툰베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36737&cid=43667&categoryId=43667>

기후변화 : '대학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기후변화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왔다.

<https://www.bbc.com/korean/news-49836981>

유럽 기후변화 시위 이끄는 10 대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75420/>